

정확한 情報체제와 石油시장과의 관계

# 정확한 情報체제와 石油시장과의 관계

정확한 情報체제와 石油시장과의 관계

**수직적** 통합의 재구축과 같은 강력한 대안이 현 석유시장의 침체상태를 치유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면, 그보다 약한 반면 치유효과가 우수한 대안들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石油 전문가들의 일각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석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치료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초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제네바 총회 감산합의 발표가 나오자 일각에서는 기쁨을 가지고 환영한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와 대등한 회의를 피력했다. OPEC 石油相들이 수개월동안 끈질긴 노력 끝에 감산에 대해 일단은 합의했지만 문제는 합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같은 합의가 과연 지켜지느냐 여부에 있다. 지켜되어야 할 일이다. 그들의 합의를 불발로 끝나게 할 외부요인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다지 중요치 않다. 석유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의를 보인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신중론에 불과하다. 시장 전역에 흐르는 油價안정의 기류는 밝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설령 OPEC의 감산 협정이 이루어졌다해도 油價안정의 달성수단으로서의 산유량 통제는 그 자체에 많은 장애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그중의 대표적인 것이 계속적으로, 그것도 충분한 정보없이 석유수요량을 측정하고 회원국에 할당하는 문제다. 대부분의 경우 수요량을 과다 측정하고 따라서 각국간 할당량도 과다 할당하게 된다. OPEC 석유상들은 유기폭락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차례 회동을 했지만, 회원국간의 이해관계의 대립등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엔 합의한 산유량 감축등으로 국제석유시장에 석유 공급량을 통

● 情報에 밝은 대규모 石油회사들은 불확실한 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왜 시장이 질서가 잡히기를 원하겠는가. 마진은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인 시장에서보다 효율적인 시장에서 더 적다. 그러므로 누가 효율을 원하겠는가. 따라서 市場여건이 정보중심모델로 바뀌는 것에 저항이 있게 된다. ●

제한다는 발상은 그럴듯하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OPEC 산유국들의 단결이다.

그렇다면 OPEC의 감산협정이 석유시장의 안정화에 대한 유일한 방법인가. 금년초 몇몇 전문가들과 업계의 관련자들은 수직적 통합을 재구축하는 것이 석유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수직적 재통합화는 쿠웨이트와 베네수엘라처럼 하류부문에 진출하는 방법과 산유국들과 메이저급 정유업자간 자산을 교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대안은 그렇게 쉽사리 취할 수 없는 것들이다.

### ◇ 석유시장 안정화 대책

석유시장의 안정책으로 위에서 제시한 2가지 방법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가격안정 해결책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정치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에 대해 비록 강력한 해결책은 못되지만 해결에 도움이 되고 실현이 가능한 대안이 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한 정보체제를 완비하고 이용하는 방법이다. 현상태로 보아 석유산업은 통제가 불가능하다. 구조가 조직화되어있지 못하고 시장지배력이 분산되어 있는데다가 정보체제가 시의 및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시장의 조짐이 스스로 변화에 대응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과거 메이저, OPEC와 같이 강력한 시장통제력을 보유했던 존재가 없다면 대안적인 방법으로 시장으로 하여금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공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속 정확한 정보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보다 좋고 정확하고 시의에 적절한 정보를 보급하게 되면 석유회사나 각국 정부들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줄 것이다. 정보를 합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행동에 일관성을 기할 수 있고 이에따라 시장은 안정될 수가 있는 것이다. 정보란 강력하면서도 미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정보가 없으면 시장의 안정은 거의 불가능한데, 이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기본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가격보도가 정보공급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가격을 정기적으로 보도하는 체계는 아직도 불충분한 상태이다. 특히 정보의 결핍을 느끼는 분야는 공급에 관한 것이다. 예를들면 原油생산, 유조선 이동상황등도 이에 포함되는데, 가끔 이것들은 각국간의 사정으로 즉 정치적인 이유에서 왜곡되는 사태가 자주 발생된다. 그밖에 석유제품 정제현황, 재고, 제품생산 및 소비등이 정보의 주종을 이루는데, 미국을 제외한 여타의 곳에서는 즉시 입수가 불가능하여 조업과 상업적 의사결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 ◇ 정확한 정보는 시장안정에 기여한다

1978-1979년의 제2차 석유위기 때에도 석유 공급량, 특히 재고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만 입수할 수 있었다면 대폭적인 가격폭동은 어느 정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1984년 3/4분기의 시장불안정도 생산량에 관한 보다 더 충분한 정보를 가졌더라면 상황은 개선됐을지도 모른다. 1985년말 서방시장에 네트백 原油가 공급되자 이에 관한 정보 부족으로 시장에서의 영향은 더욱 더 확대되었다. 이리하여 국제석유시장은 더욱 혼미를 거듭, 공급과잉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OPEC의 산유량은 하루 2,000만배럴 수준에 와 있다. 따라서 또한차례 가격폭락의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다

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시장의 주요변화는 과거의 OPEC, 메이저들의 시장 주도권 모델에서 지배력이 분산된 정보중심의 모델로 바뀔 필요성이 있다. 주도권 모델 시장은 본질적으로 불합리하므로 시장이 안정되려면 주도권자로부터 강력한 질서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깔려 있다. 이에 반해 정보중심의 행동모델은 질서를 강요하는 세력을 인정치 않고 합리성을 중시하여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함으로써 최적상황을 기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여건이 그와같이 변화하게 되면 자연히 그에 대한 저항을 받게 된다. 정보에 밝은 대규모 회사들은 확실한 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왜 시장이 질서가 잡히기를 원하겠는가. 마진은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인 시장에서 보다 효율적인 시장에서 더 적다. 그러므로 누가 효율을 원하겠는가. 따라서 시장 여건이 정보중심 모델로 바뀌는 것에 저항이 있게 된다.

정제의 경제성 측면에서 원유거래형태가 스파트 거래로 변화했는데, 석유산업의 역사상 가장 많은 저항을 받았다. 단지 독립계 거래업자들만이 이와같은 거래를 환영했다. 그렇지만 그와같은 거래유형의 변화는 그러한 저항과는 무관하게 일어났다. 가격 결정권은 OPEC로부터 스파트시장으로 이전되었고, 아울러 가격보도 기능도 활발해졌다. Brent 현물시장은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성장되었다. 주요관계업자들이 강력

한 반대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선물시장의 형성도 다소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확립될 것이 틀림없다.

原油의 생산에서 제품의 판매에 이르기까지 石油의 실물적 이동에 관한 정보는 아직도 부족하고 입수하기가 어려워 석유산업 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불확실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정보의 블랙홀(Black Hole)이 가장 심해 정보자체가 시기를 잃어 효용가치가 없을 때쯤에 입수되는 것이 보통이다.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 재고상황을 신속하게 통보하기로 되어있는 "Euroilstock"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들어 볼 수 있다. EEC 위원회의 후원으로 설립된 이 시스템은 회원사들이 그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내놓기를 꺼리고 있어 존폐위기에 놓여있어 존속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의 석유재고상태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공급키로한 최초의 시스템이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존속시켜야 한다. 만일 이와같은 보고제도가 1978-79년에 있었다면 2차 위기와 같은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석유산업이 복잡하고 고도화되었지만 석유시장은 어떤 점에 있어서는 아직 미성숙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석유산업은 석유이외의 시장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시스템을 비롯한 각종의 제도, 기구등을 설립개발하는데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이 석유회사들이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그들의 성장을 가속화할 시기인 것 같다. □ (PIW)

